

# 손흥민, 한국인 첫 '월드 11' 도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독점왕' 손흥민(30·토트넘)이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국제축구연맹(FIFA)과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가 선정하는 월드 베스트 11에 도전한다.

2022년 FIFA-FIFPRO 남자 월드 11을 뽑는 투표가 13일(현지시간) 시작됐다.

FIFA-FIFPRO 월드 11은 전 세계 프로축구 선수들이 직접 투표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11명을 뽑는 투표다.

2021년 8월8일부터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18일까지 성적을 토대로 포지션별로 최고의 선수를 가린다.

전 세계 프로 선수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골키퍼와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포지션에 각각 3명의 선수에게 투표할 수 있다.

투표 대상은 해당 기간 각종 프로 최상위리그와 국제 경기에서 최소 35경기를 뛰은 선수들이다.

한국 선수 중엔 손흥민이 공격수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선수가 남녀를 통틀어 월드 11에 뽑힌 적은 없다.

## 전 세계 프로선수들이 직접 투표 내년 2월 더 베스트 FIFA 풋볼 어워즈서 발표



지난 5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스타디움 974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브라질과 대한민국의 경기, 4대 1로 경기를 마친 뒤 손흥민이 관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손흥민은 최종 후보가 55명이었던 2019년과 2020년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공격수 부문 15명 후보에 오른 게 최고 성적이다. 여자 선수로는 지소연(수원FC)이 2020년 55명의 여자 선수 후보 중

미드필더 부문 후보 15명에 포함됐다.

손흥민은 2021~2022시즌 EPL에서 총 23골을 기록, 모하메드 살라(리버풀)와 함께 공동 득점왕에 올랐다. 아시아 선수 최조다.

또 안와 골절상에도 마스크를 쓰고 2022 카타르월드컵에 나서 한국 대표팀 주장으로 본선 4경기 풀타임을 소화하며 12년 만에 16강 진출에 앞장섰다.

투표는 FIFPRO와 제휴 선수협회가 선수들에게 배포한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FIFA와 FIFPRO는 투표 후 최다 득표 선수 26명을 발표한다.

이어 최다득표 선수 1명과 공격수 와 미드필더, 수비수 3명씩과 골키퍼 1명으로 구성된 월드 베스트11을 내년 2월27일 예정된 2022 더 베스트 FIFA 풋볼 어워즈에서 발표한다.

유력 후보는 카타르월드컵에서 결승에 선착한 아르헨티나의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파리생제르맹)가 꼽힌다.

메시는 지난해까지 월드 11에 15차례 선정된 바 있다.



메시 '끝까지 간다', 아르헨 8년만에 결승 진출 리오넬 메시의 '라스트 댄스'는 결승까지 간다. 아르헨티나가 2014년 브라질 대회 이후 8년만에 월드컵 결승에 올라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36년만에 정상에 도전한다. 아르헨티나는 14일(한국시간)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메시의 대회 5호골과 훌리안 알바레스의 멀티골을 앞세워 지난 2018년 대회 준우승팀 크로아티아를 3-0으로 완파했다. /뉴스

## 벤투 감독 "한국은 항상 제 삶 일부일 것"

마지막 편지 "선수들은 항상 제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파울루 벤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마지막 편지를 띄우고 고국 포르투갈로 떠났다. 그는 "우리 코칭스태프의 지식과 프로의식, 결속력 없이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코칭스태프에 공을 돌렸다. 벤투 감독은 "이제 한국 축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미래를 바라보며 떠나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 '김연경 펄펄' 흥국생명 짜릿한 뒤집기...4연승 질주

KB손보, 8연패 탈출 · 삼성화재 6연패 수렁



흥국생명 김연경(왼쪽)과 엘레나.

흥국생명이 짜릿한 뒤집기로 4연승을 질주했다.

흥국생명은 13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여자부 한국도로공사와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2(20-25 27-29 25-19 26-24 15-8) 승리를 거뒀다.

4연승을 달린 2위 흥국생명(11승3패 승점 32)은 2경기를 덜 치른 1위 현대건설(12승무패 승점 32)과 승점 차를 지웠다.

1. 2세트를 먼저 챙기고도 역전패를 당한 한국도로공사(7승6패 승점 22)는 승점 1을 가져가는데 만족해야 했다.

흥국생명 김연경은 2세트에만 10점을 따내는 등 28점으로 팀내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다. 엘레나가 25점, 이주아가 15점으로 거듭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카타리나가 28점을 수확하고, 박정아, 배우나가 각각 17점, 15점을 보냈지만 패배를 막지 못했다.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남자부 경기에서는 KB손해보험이 삼성화재를 세트 스코어 3-1(25-23 23-25 25-14 25-21)로 눌렀다.

지긋지긋한 8연패의 늪에서 벗어난 KB손해보험은 4승9패 승점 12를 마크하며 6위를 유지했다. 삼성화재

를 상대로는 이번 시즌 3번째 맞대결 만에 승리를 신고했다.

외국인 선수 니콜라를 교체하기로 한 KB손해보험은 이날 국내 선수들만 출격했다.

황경민이 공격 성공률 60.71%로 20점을 찍었고, 한성정과 한국민이 각각 15점, 13점씩을 지원했다.

삼성화재는 6연패가 지속됐다. 2승12패 승점 8로 최하위다.

시소개입 끝에 KB손해보험이 1세트를 먼저 차지했다.

22-22에서 상대 이크바이리의 범실로 한 점을 얻은 KB손해보험은 한성정의 오픈 공격으로 세트 포인트에 도달했다.

한성정은 24-23에서도 오픈 공격으로 세트를 끝냈다.

삼성화재는 KB손해보험보다 10개 많은 26개의 범실을 저지르며 연패 탈출에 실패했다.

이크바이리가 28점을 올렸지만,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아쉬웠다. 김정호가 12점을 기록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한 자릿수 득점에 그쳤다. /뉴스

# 생활속 물 절약 함께해요!



양변기에  
물 채운병 놓기



설거지 전  
미리 휴지로 닦기



양치컵  
사용하기



한 번에 모아서  
빨래하기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